

한은, 기준금리 1.50% 동결 '금융안정' 중점

국제유가 폭락 등 불확실한 대외상황에 8개월째 유지 금통위 소수 '금리인하' 의견에 앞으로 정책방향 주목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8개월째 연 1.50%로 동결한 것은 경기부양보다는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국제유가 폭락,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둔화,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등 세계 곳곳에서 한번에 터진 악재들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설날리 금리를 내렸다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때문에 세계경제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한편 국내 경기의 회복세를 더 살려나가는 쪽으로 판단이 기준 것으로 보인다.

◇'이변없는' 2월 기준금리 동결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의 예상과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 중 99%가 금리동결을 전망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이 당장 금리를 움직일 것이라는 시각은 적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한 모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아시아 중지는 금리인하를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량 감소 등으로 배럴당 20달러대로 떨어지며 폭락했고, 곡물·비철금속 등 기타 원자재 가격도 세계 수요 둔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 정책에도 세계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면서 '악날'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BOJ)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1%로 내렸는데도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본 국채와 엔화에 수요가 몰리면서 엔화 가치는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금융시장에 위협자산 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며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다.

더욱이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부채 부실 우려는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금리를 내리면 급증하는 부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금통위, 달라진 분위기...금리인하 '소수의견'

한은이 8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지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와 어느 때와는 달라진 분위기를 보였다. 이날 금통위에서 하성근 금통위원이 0.25%p의 금리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만장일치로 이뤄진 금리동결이 8개월 만에 깨진 것이다. 금통위에서는 한은이 상반기중 금리를



대화면 태블릿 삼성전자는 16일 18.4형(469.2mm) 대화면 태블릿 갤럭시 뷰(Galaxy View)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와이파이 모델은 59만9,500원, LTE 모델은 KT와 LG+를 통해 69만 9,600원이다.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서도 추가 금리인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완화적인 기조와 국내 부진한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1월 한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18.5% 감소하며 확대된 감소폭을 보였다. 가뜰스나 부진한 수출이 선박수출 감소와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로 수출은 더 내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수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6%에 그치며 고꾸라졌고,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증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직격탄을 받았던 지난해 7월(100) 이후 최저치인 100을 기록하며

'소비절벽'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됐고,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이어서 3월 정도에는 금리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구 이베스트투자 연구원은 "상반기 중 한차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의 물가와 경기판단, 금융안정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아직까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금리조정 여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의 확대 여부와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민근 기자

기업공개 상장주, 공모가 못미치는 '깡통' 주의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상당수 종목이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 하는 소위 '깡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로 이름을 올린 기업은 코스닥 시장을 제외하고도 모두 118개사에 달한다. 이에 따른 자금조달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상장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46개사가 늘었다.

하지만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종목 26개는 평균 9.9%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인 33개 종목은 평균 21%의 손실률을 기록했다.

특히 IPO 수급불균형이 있었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는 수요예측 부진 등으로 회사 10곳이 모두 IPO 공모를 철회했다.

당시 이름을 올린 종목 가운데서도 손실을 기록한 곳이 상장일 기준 18곳, 연말 기준으로도 14곳에 달했다.

금감원은 공모주를 투자할 때 ▲수급현황 ▲수요예측 결과 ▲공모희망가액 산정 방식 ▲상장 방식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월2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차이테크놀로지스 소재를 시작으로 국내 증시에 이름을 올리는 외국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적힌 투자 위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IPO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주권사에 대한 불성실한 수요 예측, 공모가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의 적정성, 상장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호델롯데 등 대형 IPO와 외국기업들의 국내 상장으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예측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가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LG전자, 스마트폰 '스타일러스 2' 3월 출시

LG전자는 스마트폰 '스타일러스(Stylus) 2'를 이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포그레스(MWC) 2016에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일러스 2는 '스타일러스 펜' 축을 기존의 러버팁 대신 나노코팅된 섬유재질로 얇게 구현해 정교한 필기를 돕는다. 만년필의 필기감을 제공하는 '캘리그래피 펜 타입'을 기본 서체로 설정해 아날로그 감성을 더했다. 이번 제품은 프리미엄 필기 기능으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한다.

▲펜을 뺐으면 자동으로 관련 메뉴가 뜨는 '펜 메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위에 바로 메모 가능한 '바로 메모' ▲폰의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스타일러스 펜' 분실을 방지하는 '펜 지킴이' 등이다.

디자인은 5.7인치 대화면에 145g의 무게, 7.4mm 두께로 슬림하다. 제품 후면 커버는 '스핀 헤어라인(Spin Hairline)' 패턴을 적용했다.

'스타일러스2'는 3월에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한국GM 노조, 임팔라 국내 생산 위해 '투쟁'

한국GM 노사가 임팔라 국내 생산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임팔라 국내 생산을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는 '수입 판매되는 임팔라를 타고 다니는 임원은 어느 회사 임원인가?' 내수판매 향상의 지름길은 임팔라 국내생산' 등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달부터 임팔라 국내 생산을 위해 투쟁 수위를 높였다. 지난 12일부터는 임팔라 차량 출입금지 경고

내수판매 향상 위해 1인 피켓 시위 나서기도

장을 부착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팔라 국내생산 투쟁 과정 중 수입 임팔라의 공장 출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회사 임원들이 수입 임팔라를 거리낌 없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그는 "긴 휴업을 반복하고 있는 부평 2 본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히 임팔라의 국내 생산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회장이 임팔라가 연간 1만대 이상 판매되면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에는 회사측에서 '연간 3만대 이상 판매'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임팔라는 올해 1월까지 8464대가 팔렸다.

한국GM 관계자는 "호샤 사장이 국내 고객에게 반응이 좋으면 국내 생산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판매량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연간 판매 3만대 이상도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팔라의 국내 생산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샤 회장은 한국 생활을 정리한다. 호샤 사장은 2012년 3월 한국GM CEO로 취임해 4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올해 한국GM 회장직은 물론 한국GM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호샤 회장의 거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